

From
DARKNESS
to **LIGHT**

Rescue, Restore, Empower.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
journey to **FREEDOM.**



길렙션교회
CALEBMISSION

2024
ANNUAL
REPORT

대표 인사말



로마서 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부터 갈렙선교회는 탈북민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훈련과 자립을 돕는 사역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갈렙선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었겠지만, 엄격한 방역 조치로 인해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곳에 숨어 지내던 탈북민들을 위한 구출 사역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숨어 살아야 했던 탈북민들과 의료 접근조차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물의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팬데믹 기간 중 한국 내에 탈북민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저와 탈북민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용접하며 함께 건축하였고, 후원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빛을 지며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세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의 종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 팬데믹이 끝나고 구출 사역을 재개하려 하자, 중국의 강화된 감시와 제약으로 인해 구출 비용이 팬데믹 이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역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를 통해 갈렙선교회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2023년 1월, 이 작품이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하나님께서 북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스트리밍을 통해 수많은 가정에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되었고, 북한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2024년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17명의 소중한 탈북민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현재까지 16명의 생명을 더 구출했으며, 구출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출 사역의 재개와 더불어 탈북민 공동체 건축도 마무리되었고, 얼마 전 정부의 모든 행정 허가도 마쳤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곳에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연례보고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감사의 기록입니다.

육체적 억압에서 벗어난 후에도, 많은 탈북민들은 정신적·영적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제자훈련과 복음 중심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여러분의 동역 덕분에 갈렙선교회는 구출 사역, 복음 전파, 자립 지원, 공동체 제자훈련, 탈북민 장학금 및 심리치유, 국제 인권 옹호, 북한 내부 정보 유출 및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평화 증진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60세가 되어, 한때 은퇴를 생각했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긴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퇴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저는 주님께 앞으로 10년을 더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저는 구출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통해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25년간의 사역 동안 저는 늘 하나님께서 언제 북한의 문을 여실지를 생각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될 때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렙선교회는 복음적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자 탈북민들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북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적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일반인들이 북한 주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갈렙선교회와 후원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빛진 자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

김성은



Vision 비전

구출, 회복, 양육: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를 탈북민들에게 전합니다.

Mission 사명

갈렙선교회는 탈북민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북한을 복음으로 재건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Core Values 핵심 가치

- 복음 중심: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 인간 존엄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자유와 희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 자비로운 구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전인적 회복을 제공합니다.
 - 제자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탈북민들이 영적·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도록 훈련합니다.
- 하나님 나라의 연합: 남북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준비하며 헌신합니다.

Who We Are 우리는

갈렙선교회 USA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048명의 탈북민을 구출해 온 그리스도 중심의 501(c)(3) 비영리단체의 미국 지부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숨겨져 있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고 통일된 한반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Our
Programs

주요 사역

탈북민 구출 사역

중국과 동남아를 통한 안전하고 전략적인 구출 작전을 수행하며 선교사들이 직접 동행합니다.

복음 사역

동남아시아에서의 단기 보호처 제공: 성경공부, 트라우마 회복, 신체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탈북민 공동체 센터 (천안)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농사, 식사, 예배를 통해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치유 공간입니다.

심리 치유 프로그램

공개처형, 기아, 인신매매, 학대를 겪은 탈북민들을 위한 복음 기반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장학금 및 리더십 훈련

탈북민 및 그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공, 미래 선교사와 복음 리더 양성.

국제 인권 옹호

비욘드 유토피아 등 다큐멘터리 제작과 국제 포럼 참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립니다.

2024

하이라이트

17명+16명

탈북민 구조

7명

9명

장학금

탈북민 구출 사역자 지원

1명

1명

탈북민 법률 서비스 암치료 지원

비욘드 유토피아

오스카 예비후보 및 BAFTA 최종 후보 선정,
PBS 방영으로 100만 명 이상 시청,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탈북민 트라우마 상담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 착수

47만 시간 시청

갈렙선교회 유튜브 통해 탈북민 인권 알리기

530,000명 참여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통한 북한 인권 알리고 기도

12개 주 26개 교회

간증 집회, 하버드·코넬·터프츠·리버티 대학 및 정책 연구소에서 사역 소개와 북한인권 간증

동남아 안전가옥

이전 완료

천안 탈북민 공동체 센터

완공 및 건축 부채 전액 상환

탈북민 구출 사역



비욘드 유토피아에 소개된 노씨 가족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가을, 마지막으로 구조된 탈북민들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구조 사역은 한동안 중단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에 다시 시작되어 7명이 구조되었고, 2024년에는 17명, 그리고 2025년 6월 현재까지는 이미 16명의 탈북민이 자유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2025년에 구조된 12명의 탈북민을 위한 비용은 사역의 특성상 사전에 준비된 재정으로 충당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모금된 헌금이 사역지에 미리 송금되었고, 중국 내에 숨어 있는 탈북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순간, 즉각적인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역은 2024년 연례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구조된 탈북민들은 모두 중국 내에서 강제 결혼으로 팔려간 여성들입니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구조되었으며, 특히 한 여성은 10대 시절 팔려간 이후 14년 동안 화장실도 없는 집 안에 갇혀,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문이 잠긴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탈북 여성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민 수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많은 구조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갈렙선교회와 김성은 목사님은, 날로 강화되는 중국의 단속 속에서도 더욱 안전한 구조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4년 몽골 사막과 제3국 경로에 대한 사전 답사를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지금도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생명을 살리고, 자유와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음 사역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가 철저히 금지된 체제 속에서 태어나, 국민을 노예화하고 독재자를 신격화하는 북한 정권 아래 세뇌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어린 나이에 공개 처형을 목격하고, 매주 ‘생활총화’를 통해 친구와 이웃을 비롯 자아를 비판하게 하며, 극심한 빈곤 속에서 가족이나 이웃이 아사하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많은 이들은 탈북민들의 여정을 현대판 출애굽기로 비유합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도, 중국의 북송 정책으로 인해 자유를 찾지 못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 성매매나 강제결혼 등의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광야 속에 이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설사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많은 이들은 트라우마와 북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깊은 고통에 시달리며, 때로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갈렙선교회는 지난 25년간의 사역을 통해, 탈북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 자유가 선행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오기 전, 동남아 지역의 안전가옥에서 약 3개월간 성경 공부와 복음 중심의 양육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동남아 센터는 주기적으로 위치를 옮길 필요가 있으며, 김성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요청을 통해 한 미국 후원자가 이전 비용을 지정헌금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족은 특별한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며, 24시간 돌보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와 어둠 속에 있으며, 처음으로 복음을 접할 때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에도 거의 매달 새로운 탈북민이 도착했고, 3개월의 복음 교육 후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열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탈북민 자녀들까지 구출하셨으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은 선교사님의 6학년 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의 순수한 사랑과 섬김은 탈북민들과 갈렙선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구출 사역팀

탈북민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의 눈을 피해 중국에서 부터 약 7,500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여러 국경을 넘으며 이동해야 합니다. 이 여정에는 동남아 밀림을 밤새 걸어야 하는 구간과 메콩강을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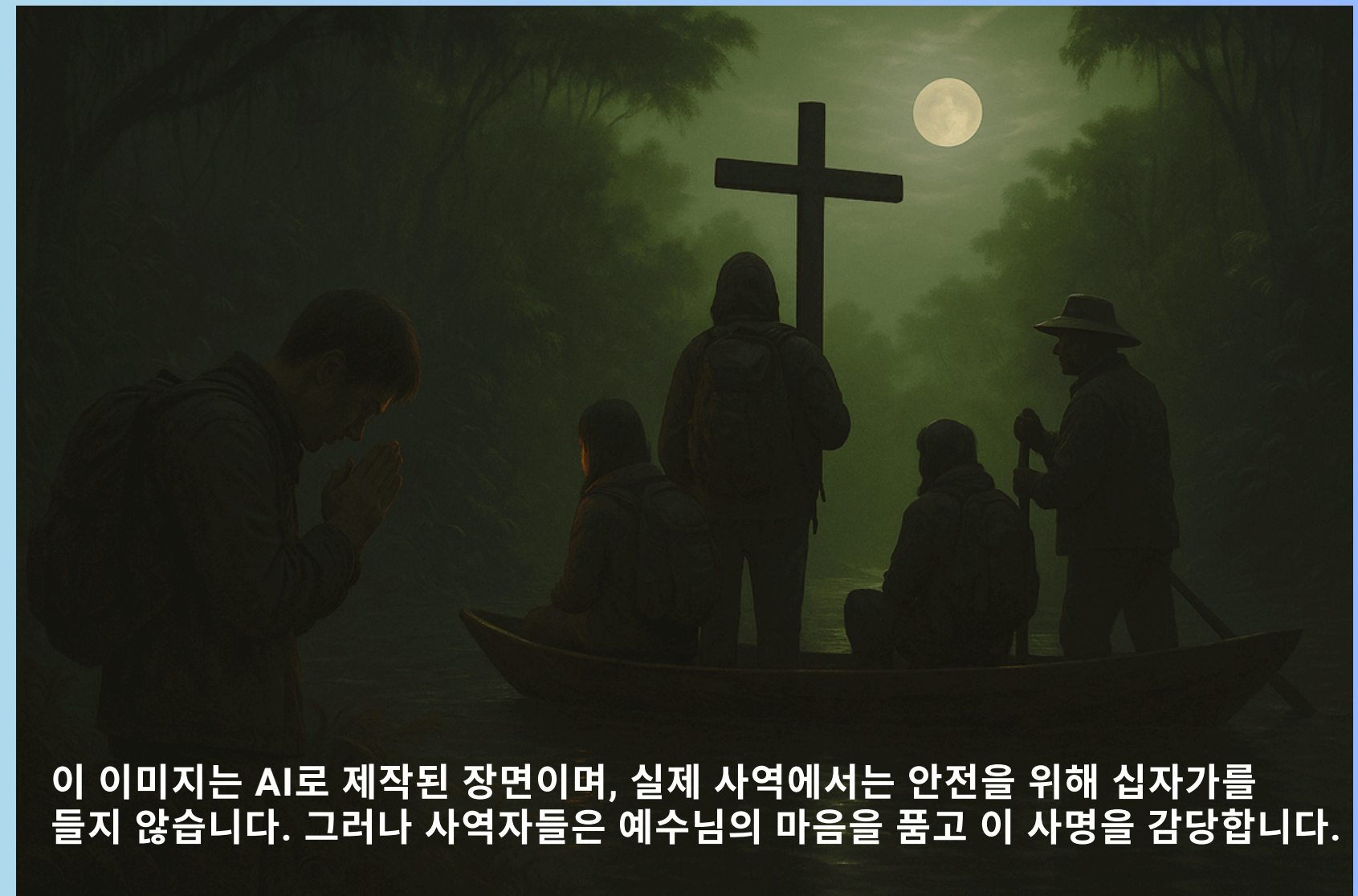
갈렙선교회는 이 구조 사역을 단지 브로커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믿음의 사역자들이 직접 동행하고자 노력합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이전에는 김성은 목사님께서 직접 수백 번의 구조 여정에 동행하셨고, 사역 중 입은 부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영화 이후 얼굴이 널리 알려진 상황 속에서, 김 목사님은 갈렙선교회의 ‘사역을 외부에 전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계시며, **구조 사역은 익명으로 섬기는 현지 사역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 루트 내 여러 지역의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들 사역자들은 복음화율이 낮은 국가들 가운데서도 탈북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며, 구출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들을 통한 그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구조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갈렙선교회는 이 사역자들이 섬기는 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들은 탈북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함께 기도하며 귀한 동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구조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자 9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탈북민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갈렙선교회는 그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노트북을 지원했습니다.** 이 방문에 앞서 김성은 목사님께서 뉴스레터를 통해 특별 후원을 요청하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 헌신해주신 많은 후원자들 덕분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장면이며, 실제 사역에서는 안전을 위해 십자가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탈북민 공동체 센터

탈북민 공동체 센터는 탈북민과 남한 사람들이 함께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치유하고, 함께 농사를 짓고 식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약 2,100평 규모로, 예배당 1채와 숙소 2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탈북민들과 남한 동역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에 따라 약 100종류의 채소와 과일—무, 배추, 감자, 옥수수, 오이, 수박, 참외 등—을 재배하여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자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접 수확한 배추와 재료로 김장 800포기를 담가 공동체와 이웃이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 닭, 산양 등 다양한 동물들도 함께 키우며 생명을 돌보는 훈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구출 사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도, 김성은 목사님과 탈북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땀 흘려 건축을 시작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빚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를 지속해 2023년 구조 사역 재개 직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행정적인 공식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갈렙선교회 사역에 감동받은 미국 후원자께서 빚으로 남아있던 모든 건축비용을 감당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공동체 센터의 빛까지도 구속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신 후원자님들, 그리고 늘 기도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 센터가 탈북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며, 북한을 위한 사역자로 훈련받고 자립하게 되는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공동체 센터

더불어, 김성은 목사님의 첫 탈북민 구출 대상자이자 현재 아내이신 **박에스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서평교회(서울-평양)’**에서 탈북민 공동체가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공동체 센터에서는 평일에 모임을 가지며 유기적으로 예배와 양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여 명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 공동체 안에서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립 사역의 일환으로, 갈렙선교회는 **암 치료비** 지원이나 **법률적 도움**처럼 긴급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역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열악한 환경과 고난으로 인해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연고가 없는 이들은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024년에도 탈북민 한 분의 암 치료비를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들은 종종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탈북했던 이들은, 한국에서 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한 탈북민을 도왔으며, 그가 감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탈북민들이 자유 세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교육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 ‘하나원’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김성은 목사님께서 하나원 내에서 예배를 인도하셨으며, 당시 참석한 약 60명의 탈북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간식도 풍성히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보내오는 크고 작은 도움 요청에도 귀 기울이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리더십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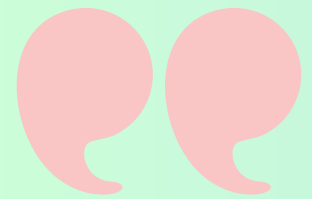
갈렙선교회에는 현재 신학교에 재학 중이며, 탈북민 구출과 양육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십대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극심한 기아로 학교에 갈 수 없었고, 가족 대부분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기차 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다리를 잃었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할 약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2000년 초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제노동과 학대를 당하며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교단체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 결과, 그는 체포되어 노동교화소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이 3~4개월 안에 생명을 잃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살아 남아 감형을 받고 **10년 후 풀려났고, 이후 갈렙선교회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북한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신학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미국의 후원자는 감동을 받아, 전도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학부 4년과 신학대학원 2년의 전 학비는 물론, 학업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일체를 지정 현금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의 노동교화소 생존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까지 인도하시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시는 여정은 더욱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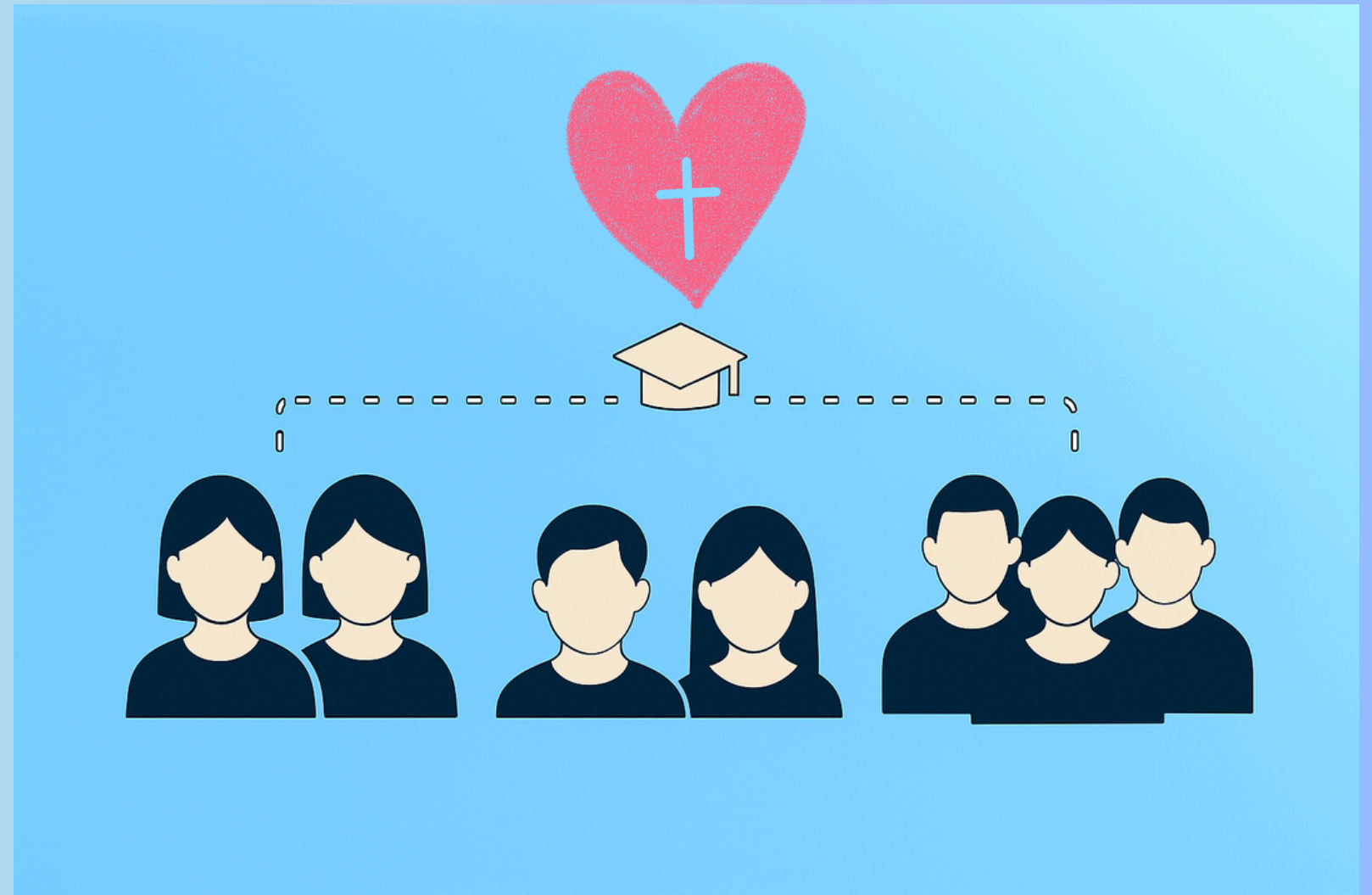
갈렙선교회는 이 전도사님 외에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탈북민 자녀들과 탈북민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 7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자립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리더와 미래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하나님께서서는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를 통해 북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전 세계의 기도와 실질적 도움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은 **2024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예비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BAFTA)**에서는 **최우수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르며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과 고통을 세계에 알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을 돕는 크리스천들의 사역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본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개봉되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정부 기관과 교회**에서 상영되며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창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욘드 유토피아는 미국과 전 세계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공개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미국 공영방송 **PBS**를 통해서만 **100만 명 이상이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며, 그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기관과 학교, 단체(Tufts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 Harvard Kennedy School,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Chesterton House at Cornell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워싱턴 DC 미주통일연대, 민족평통 OC, CA)에서 상영과 간증, Q&A를 통해 **북한 사역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귀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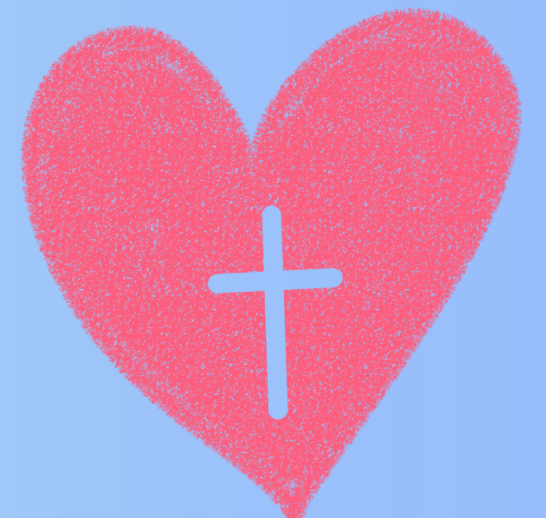
특히 2024년에는 **미국 12개 주의 26개 교회**에서 김성은 목사님의 간증 집회가 열렸고, 이를 통해 북한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교회마다 타올랐습니다. 이 간증 집회를 통해 많은 미국 성도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세계 53만 명이 참여한 ‘다니엘기도회’**에서 김성은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나누며, 탈북민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간증은 많은 이들에게 북한을 향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외에도 갈렙선교회는 다양한 전 세계 다큐멘터리 및 인터뷰 요청에 응하며, 북한 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계 곳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의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북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며, 갈렙선교회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심리 치유 및 성경적 트라우마 상담 프로그램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아온 우리도 매일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육체적 자유를 얻고, 동남아 사역 센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탈북민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공개처형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고, 북한 정권 아래에서 억압 속에 살아야 했으며, 탈북 이후 중국에서는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극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존자들에게는 **전문적인 성경적 상담과 트라우마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렙선교회는 지난 사역 기간 동안 탈북민 공동체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한국의 서평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상처를 나누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과 예배를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 미국 사역의 문을 여시며, 우리는 미국 내에 있는 보다 발전된 성경적 트라우마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탈북민과 장차 북한 주민을 위한 특화된 성경적 트라우마 상담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해로 삼아, 미국 내 전문 상담가들과의 미팅과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31년까지 7년 안에 이 매뉴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는 그날, 전 세계 어느 상담가든 갈렙선교회를 통해 개발된 매뉴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협력 —

북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였고, 그 여파로 코로나 이후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코로나 이전에 탈북했지만 인신매매로 팔려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이 50,000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신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갈렙선교회는 구조 사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와 협력하여,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현지 촬영과 동시에 실제 구조 활동도 병행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않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대학과 언론 등에서 북한 내부와 탈북민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김성은 목사님은 온라인 미팅을 통해 시차에 맞춰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참여하시며, 북한 사역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제 연구 및 영상 프로젝트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진 25년의 역사

갈렙선교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굶주림으로 33만 명 이상이 사망한 북한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성은 목사님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업을 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형제자매들이 단지 밥 한 공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북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자, 은사 목사님을 따라 북중 국경 지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북한 아이들을 마주한 그는,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 기도 후, 하나님은 한 탈북 여성과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목사님은 그녀를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첫 구조는 단지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출 루트의 시작이 되었고, 그 여성은 한국에 도착해 김 목사님과 결혼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렙선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 초기, 김 목사님은 북중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탈북민들을 먹이고, 국경 수비대와의 관계를 쌓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사업도 모두 내려놓고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으며, 그의 가족들도 함께 이 길을 걸었습니다. 형제, 자매, 조카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했고, 심지어 어머니는 중국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자유와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간증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듯, 갈렙선교회가 구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필요한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닫히고 모든 구조 사역이 중단되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한 장로님이 한국 다큐멘터리를 통해 갈렙선교회를 알게 되었고, 기도와 후원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김 목사님은 **미국 내 501(c)(3) 비영리 법인 설립**을 요청하셨고, 이는 **미국 후원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수수료 없이 쉽게 후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 탈북민 사역이 세계에 알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였습니다. **2023년**, 팬데믹 이후 구출 비용이 **10배 가까이 상승**하며 사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욘드 유토피아'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나님께서 한 후원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총 100만 달러 이상을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탈북민 구조비, 동남아 안전가옥 이전, 한국 공동체 센터 부채 상환, 10년간 수감된 후 귀환한 탈북민 전도사의 신학교 6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그리고 김성은 목사 부부의 60세 기념 휴가까지 세세히 지정하여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렙선교회 사역을 위한 지원을 넘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사명을 감당해 온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 귀한 후원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김성은 목사님의 목 통증 완화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비,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한 미국 출장을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 탈북민 구출에 헌신하는 동남아 목회자들의 노트북과 지역 교회 사역 지원, 탈북민 치료비 등 다양한 필요를 위한 지정 헌금이 포함된 소중한 후원금이 함께 모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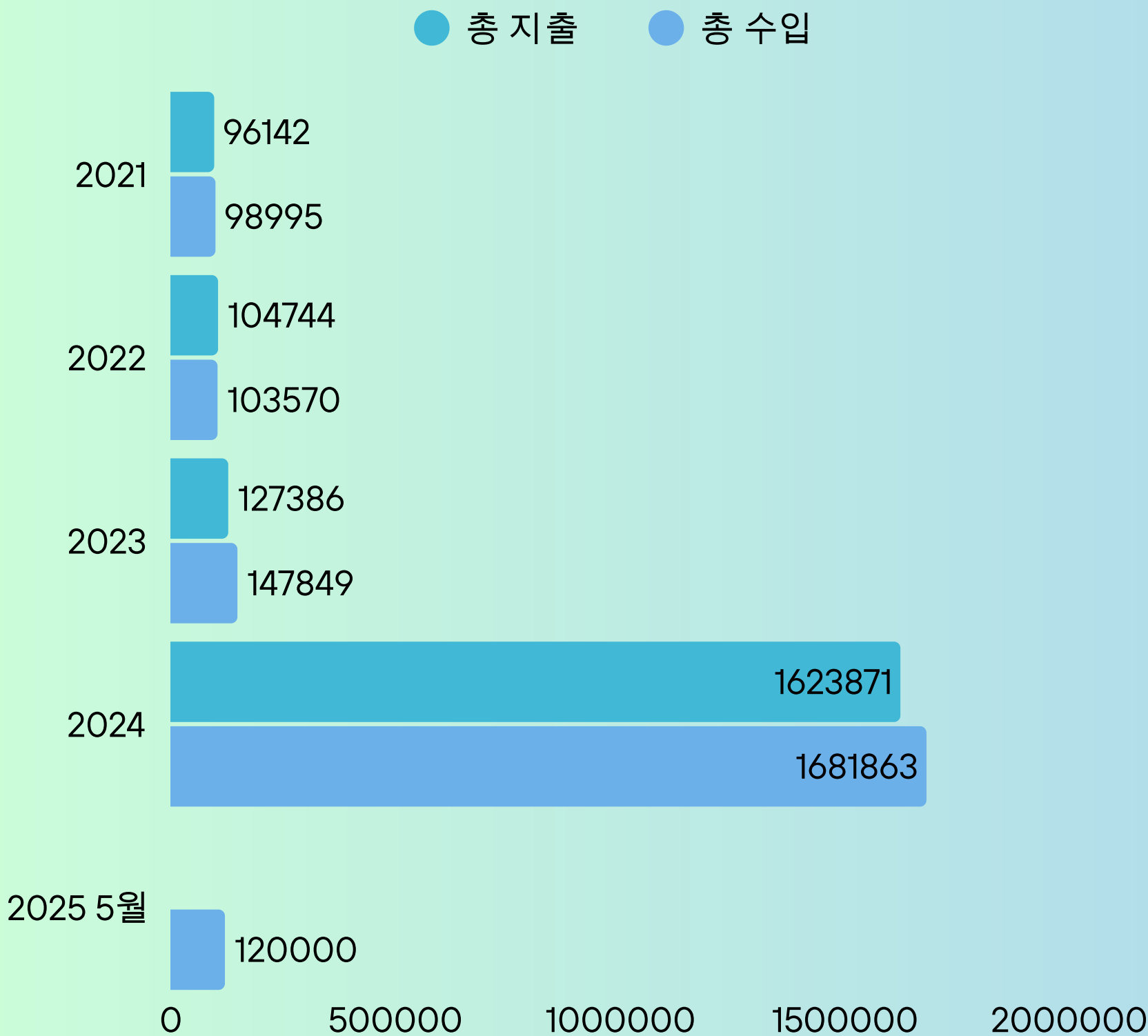
이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갈렙선교회의 사역은 김성은 목사님과 대부분의 탈북민 및 동남아 현지 구출 및 복음 사역 사역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별도의 연례보고서를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선교회 USA를 예비하시고, 자원봉사자들과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이와 같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현재, 미국에서 다시 \$120,000 이상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에는 50,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숨어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구출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며, 자립을 돕는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며, 북한과 중국 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 또한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매월 \$12씩 후원할 7,000명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이 절실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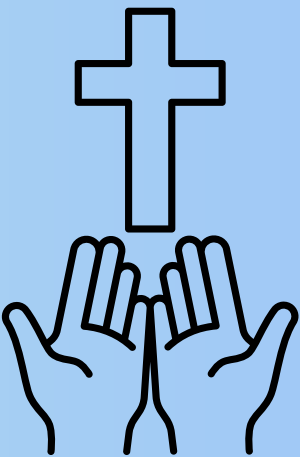
재무보고



2021 – 2025 연도별 재정 요약

2024년 수입 항목 구성

항목	금액	비율
후원 및 기부금	\$1,678,951	99.8%
기타 수익	\$2,912	0.2%
합계	\$1,681,863	100%



2024년 지출 항목 구성		
항목	금액	비율
사역 직접 비용	\$1,586,957	97.7%
운영/지원 비용	\$36,914	2.3%
합계	\$1,623,871	100%

주목할 사항



2024년, 한 후원자께서 총 \$1,205,000을 지정헌금으로 헌신해주셨습니다. 이 헌금은 탈북민 구조비, 한국 공동체 센터 부채 상환, 동남아 안전가옥 이전, 탈북민 신학생의 장학금 및 생활비, 그리고 김성은 목사님의 60세 기념 휴가 등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세부 지정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몇몇 후원자들께서 김 목사님의 줄기세포 치료비, 구출 사역자들의 노트북, 항공료 등도 지정 헌금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며, 귀한 후원자들을 통해 사역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2024년 프로그램 지출 내역		
프로그램 영역	금액	비율
탈북민 구출 및 복음 사역	\$898,990	56.65%
탈북민 장학금 지원	\$250,000	15.75%
탈북민 공동체 및 자립 지원	\$300,000	18.90%
북한 인권 알리기	\$222,967	14.05%
합계	\$1,586,957	100%

2025년 비전과 목표

“7,000인의 기도와 후원으로 생명을 살리는 해”

2025년, 갈렙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열왕기상 19:18)의 말씀에 따라, **매달 \$12씩 정기적으로 후원할 7,000명의 동역자**를 모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목표:

매달 \$12씩 후원하는 7,000명의 정기 후원자를 통해, **매달**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민 4명**을 구조하고 안전한 보호처로 인도하며, 복음과 **제자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확장 비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14,000명의 동역자가 세워진다면, 매달 8명의 탈북민을 구조하고, 동남아 지역에 새로운 안전가옥을 세워 제자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자가 늘어날수록 구조할 수 있는 탈북민의 수와 안전가옥의 수 또한 함께 확대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탈북민 구조 사역은 단순한 자금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과 정글을 넘어야 하며, 인신매매와 억압 속에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갈렙선교회는 재정적 후원자뿐 아니라, 매일 기도로 함께하는 7,000명의 영적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SCAN ME



DONATE



2025년 비전과 목표

성경적 트라우마 상담 매뉴얼 개발

2024년, 갈렙선교회는 북한 탈북민과 주민들의 깊은 상처를 위한 성경적 트라우마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내 크리스천 트라우마 케어 전문가 및 상담 기관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북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의 깊이와 복잡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전략적 전환

이에 따라 갈렙선교회는 방향을 바꾸어, 탈북민의 고통을 잘 이해하는 갈렙선교회 사역자들과 탈북민 자녀들이 상담을 배우고,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실행 계획

- 갈렙선교회 사역자 및 자녀 중 헌신된 인재들을 선발하여 상담 훈련 시작
- 미국 내 기관 및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무료 또는 장학 중심의 온라인 강의 참여
- 기존의 기독교 상담 및 트라우마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매뉴얼 공동 개발
-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31년까지 7년 안에 이 매뉴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

비전

고통을 겪은 자가 복음으로 치유되어, 다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 이 매뉴얼이 북한 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적 치유 도구로 사용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5년 비전과 목표

북한선교사를 세우는 “북한선교학교” 비전



갈렙선교회는 미래의 북한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탈북민 공동체와 미국 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북한선교학교(Institute)’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대상 및 방식

- 대상: 탈북민, 북한 사역에 헌신한 한국인 청년, 북한선교에 마음이 있는 미국인 크리스천
- 한국팀: 대면 훈련 (탈북민 공동체 중심)
- 미국팀: 온라인 참여 및 현장 교류 프로그램 운영

주요 프로그램

- 한미 교차 방문 및 사역 협업 (예: 미국 컨퍼런스 참석, 한국 및 동남아 현장 체험)
- 탈북민 출신 사역자들의 재교육 및 선교 준비 과정
- 북한 주민의 문화, 심리적 배경 이해를 위한 훈련

이 훈련은 탈북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북한의 문을 여실 때를 대비해,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선교 역량과 문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사명: 구조 사역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갈렙선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이상 구조 사역이 필요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북한의 문을 여시고,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 날이 오면,

- 중국에 숨어 살던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고향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 한국과 자유세계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너진 북한 땅을 재건하도록 돕고,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좋았더라’ 하신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일성 우상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생명과 소망의 회복이 시작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갈렙선교회의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이사야 61:1-4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
무너진 곳을 다시 쌓으며, 옛 황폐된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파괴된 성읍들—대대로 황폐하였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갈렙션교회
CALEBMISSION

© CALEB MISSION



CALEBMISSION